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 전자통관, 사전신고, 데이터베이스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건강식품, 전자통관, 사전신고, 데이터베이스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 10. 15.
FDA, 불량 건강식품에 대한 단속 강화

2016. 7. 1.
FDA, 전자서류 교환 규정 제안

2016. 8. 11.
미국 담배 수입, FDA 아닌 세관에서 심사

2016. 9. 1.
건강식품 전자통관 절차 간소화된다

핵심이슈 도출

"미국, 건강식품 전자통관 절차 간소화"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국, 건강식품 전자통관 절차 간소화

2016년 9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 건강식품 통관을 진행할 때에는 전자통관 단일창구 시스템인 National Single Window(NSW)를 통한 통관이 가능하다. 기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사전에 수입식품을 신고하고 이를 다시 미국 관세청에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미국에서 건강식품 수입 시에는 반드시 FDA를 통해 사전 신고(License Per Invoice, LPI)를 마쳐야 하는데, FDA는 각 제품별로 취득한 LPI를 관세청에 전달해 수입통관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NSW 시스템을 통해 정부부처 간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전자적으로 공유되면서 관세청의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NSW 시스템은 공공 부문의 네트워크 외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도 저장, 수출입 기업의 정보를 조회하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NSW 시스템에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건강식품의 전자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서류 전달 절차도 줄어들고, 기업정보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건강식품 수출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최근 한국의 건강식품이 미국에서 인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번 통관절차 개편으로 미국 수입업체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편 FDA는 2016년 9월 30일까지 기존의 LPI 절차를 적용하며,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미국의 건강식품 수입업체는 NSW 시스템에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이후로는 모든 절차가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이번 전자통관 절차 개편으로 국내 건강식품 수출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은 NSW에 개정을 생성하고 FDA의 공지사항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절차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는 미국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통관 소요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산 건강식품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국경 보호국 및 관세청의 하기 홈페이지에서 전자통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https://www.cbp.gov/trade/ace/federal-register-notices)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